



새벽달

해당화

소개글

안도현 시인은 절필을 선언했지만 나는 13번째 시집 출간을 준비한다.

삶의 고비마다 자신을 다독여 주었던 시편들은 나의 기록이다.

우리시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사안들도 적지 않다.

새벽달 보며 밤새워 써내려 간 시 한편의 역할이 소중한 때이다.

목차

1	새벽달을 보며 돌아오는 길	5
2	잘 가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7
3	내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이유	9
4	그 꽃은 우리를 위해 핀다네	11
5	긴급조치 기록을 찾아서	13
6	내가 스마트폰을 바꾼 이유	15
7	남몰래 흐르는 눈물 누가 알랴	17
8	나의 민원 1AA-1304-100732	20
9	오늘 하루 기록도 소중하다	22
10	쉽게 써 버린 긴급조치 진술서	24
11	나의 젊음 나의 시 후회는 없다	26
12	초승달이 칼날처럼 빛날 때	28
13	비오는 날 내 마음도 적셔주려마	30
14	새로운 시작의 날을 기다리며	32
15	시가 왜 범죄행위냐고 묻는다	34
16	김미희 국회의원을 응원하며	36
17	내 다시 목놓아 부를 오월의 노래	38
18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	40
19	하루가 피말리는 싸움같은	43
20	부산행 버스 낙동강을 지나며	45
21	이제는 아픔을 끝내야 할 때	47
22	우린 어디쯤 왔는가 묻자	49
23	모두가 하늘이다 함께 살자	51
24	시인의 인생역정을 기록하며	53
25	공과금 자동납부기 앞에서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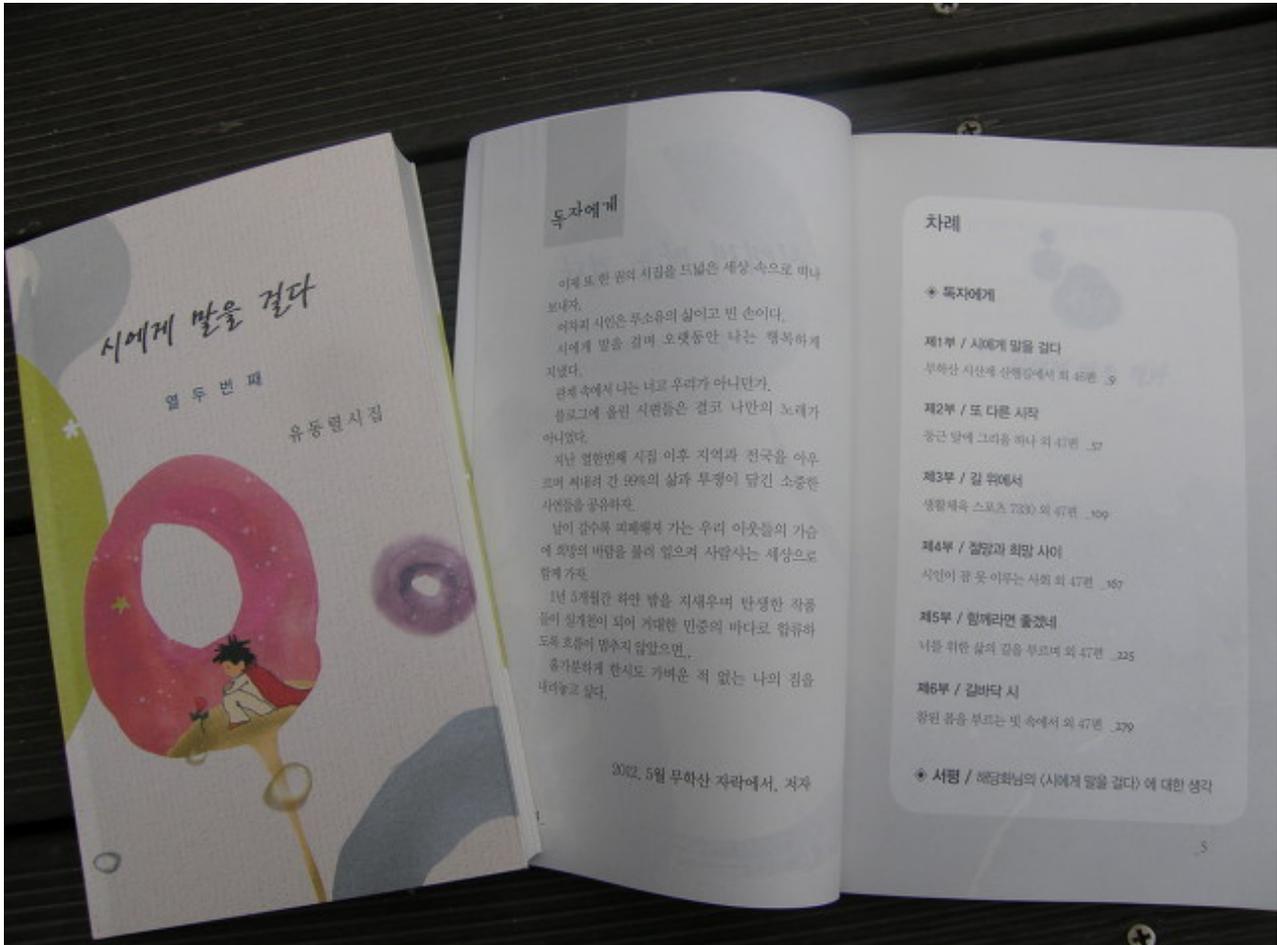
26	야생초에게 말을 건네며	59
27	진보라와 함께 나는 갈테야	61
28	박통의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63
29	꽃들도 잠이 든 한밤중에 쓰다	65
30	땅의 사람들 그리워지는 날	67
31	다시 열사들 앞에 나의 삶은	69
32	저 꽃도 내게 희망일 수 있다	72
33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74
34	전쟁같은 오늘 하루를 보내며	76
35	다시 한번 투사로 살고 싶은	79
36	혜화동에 승리의 북소리 울리기를	81
37	철도는 우리의 가슴으로 달린다	83
38	용추폭포 계곡길을 따라가며	85
39	우린 마산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87
40	저 달이 지기 전에 나는	89
41	다시 헌법 제1조를 목놓아 부르며	91
42	작은 꽃도 희망이 되는 세상	93
43	이 나라 정부가 한심스럽다	95
44	장마비가 그친 어느 새벽에	97
45	가네 가네 한많은 세월이 가네	99
46	그래 언제 한번 가 봐야지	101



새벽달을 보며 돌아오는 길

잠결에 잠시 깬다가
페이스북 여니
앗 전시상황이다
지금 남도는
개나리 벚꽃 활짝 피어
봄 나들이 인파로
연일 봄비건만
전쟁은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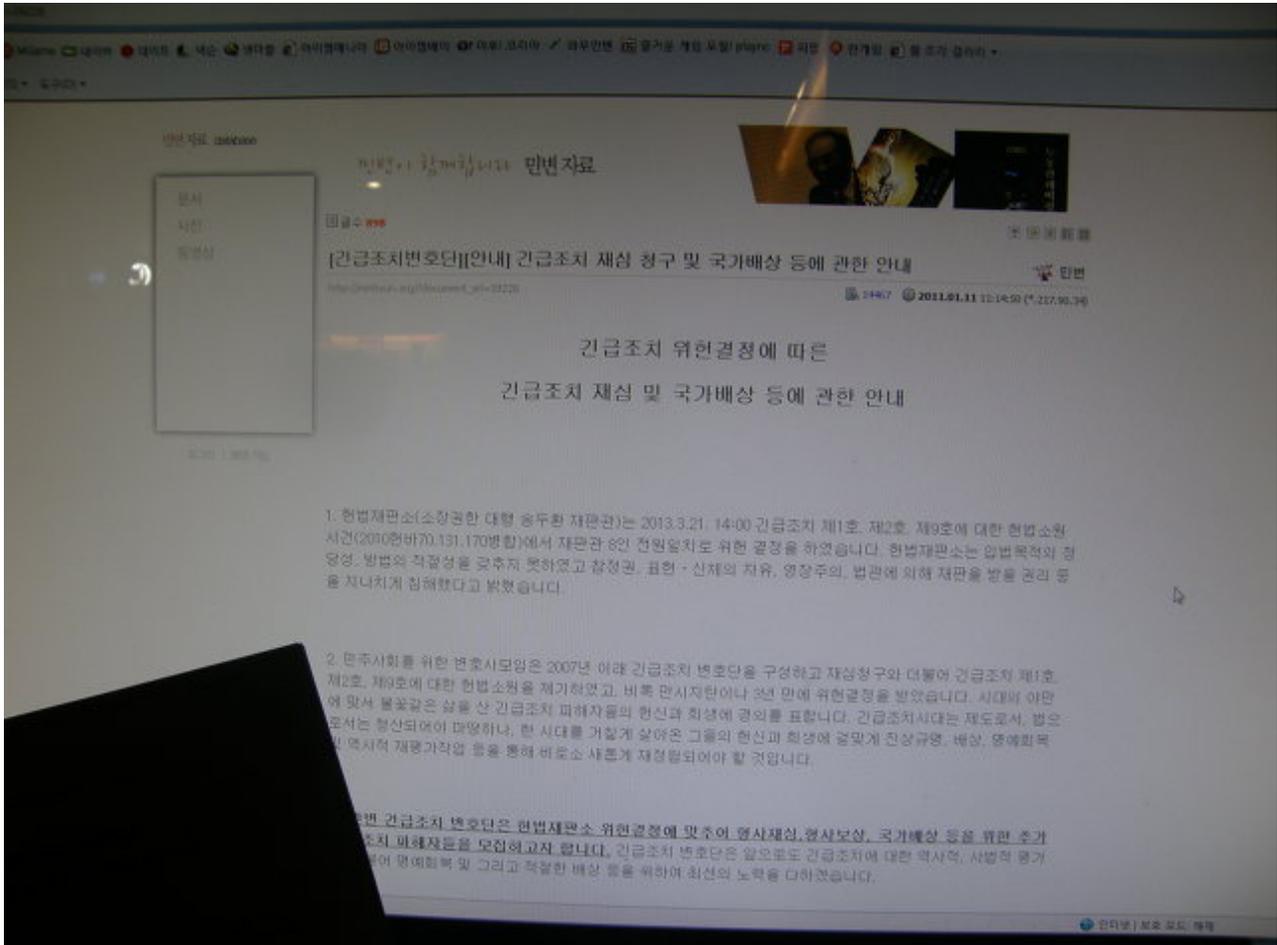
피할 수 없단 말인가
잠 못 이루는 밤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협정 체결하라!"
간절한 외침마저
한갓 몸부림에
그치고 말았는가
달과 별은
밤하늘에 빛나련만
태양은 내일도
다시 떠오르련만
5천년 한반도는
미국 일본은
핵폭풍에 타버리겠지
나 역시
살아남는다는
기약조차 막막하다
전후세대들
6.25 한국전쟁 참상을
어찌 알겠는가
선제공격 명령만이
남은 복미대전!
비상한 시국이다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다



잘 가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누라서 위로해 줄까
 오늘 시집을
 250권 잃어버렸다
 지난 여름부터
 올해 봄까지
 선배 사무실에 보관했던
 나머지 열뿔음을
 권당 100원 친다는

폐지상에 도둑맞다니
그것도 뒷문을
부순 채 싹쓸이해
갔으니 어이가 없다
창원지역 행사가 많길래
요 며칠 뜸했다가
아침 8시에
마산 오동동에 갔더니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방심한 탓에
혈육같은 나의 벗이
고물상 어디론가 끌려가
분쇄기로 찢렸거니
거기도 살려고
팔아 넘겼으리니
덤덤히 맞자
각박해지는 세상을
원망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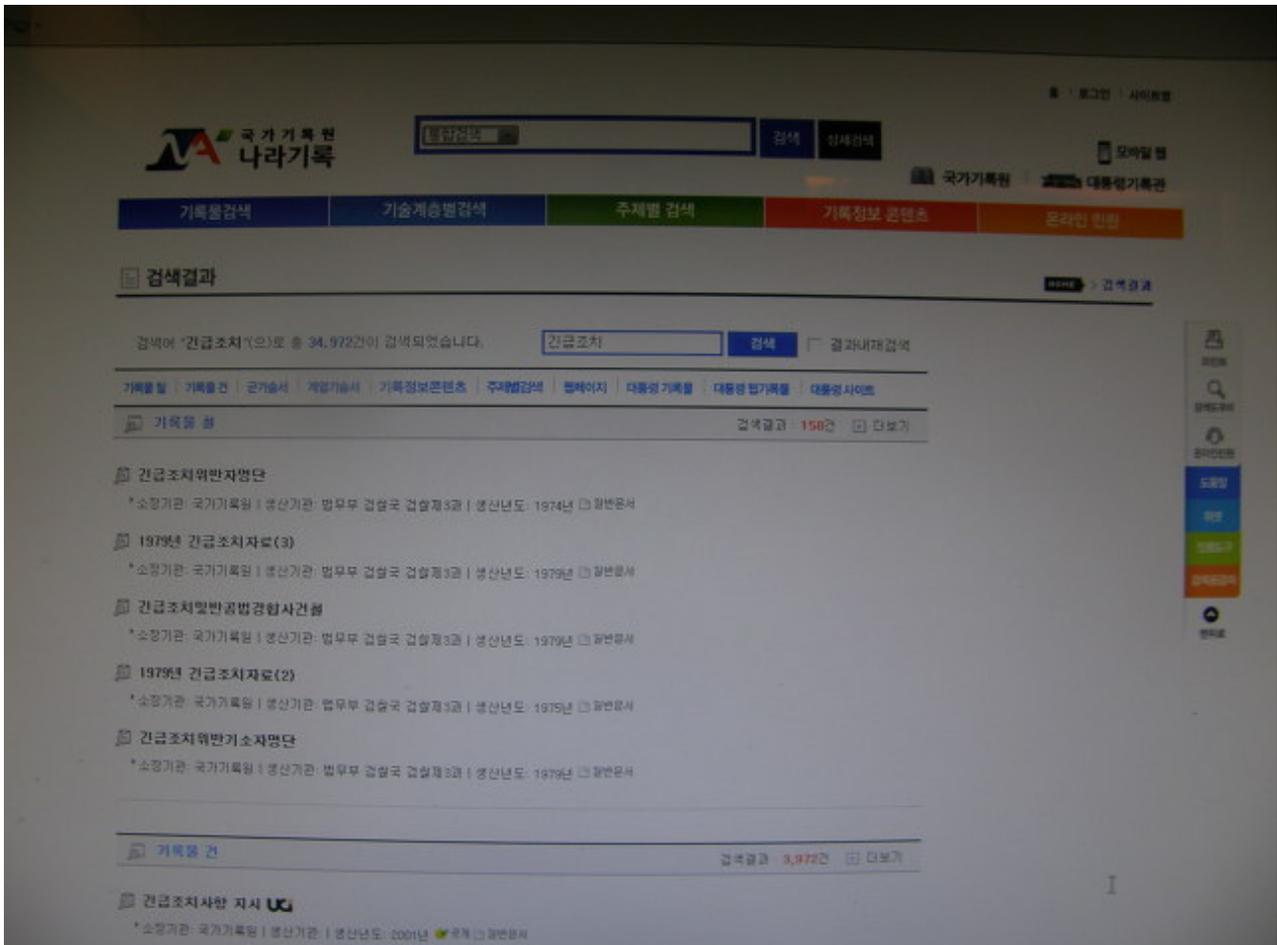
내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이유

- 우리 세대의 아픈 이야기
- 긴급조치 제삼청구
- 민변 자료를 출력하며
- 4월말까지 한번
- 제출해 볼까 싶다
- 다들 바빠놔서
- 신경써 줄 이도 없다

관련 서류를
갖추자니
나의 34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방인으로 살아온 시인은
주민증도 말소되었다
집도 절도 없다
재산은 12권 시집이다
유신독재에 맞선
그 세월이 아득하다
구속 해직까지 당했어도
마음은 젊다
그때 쓴 남북통일
시 한 편
이사다니며 잃어버렸지만
징역 2년 받았다
어설뻘어도
문학청년의 흔적이다
대숲에 이는 바람소리가
유연비어가 돼
끌려갔던 솔한 사람들
이제 명예회복을
배상을 받아야겠다
빈 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
간직할 수 있다면
긴급조치 변호단의
도움을 받겠다
오직 하나
끝 수 없는 열망
아직도 타오르기에
원점으로 간다



찬서리 눈보라
다 이기고
산에 들에 피어난
들꽃을 보라
짓밟히고 꺾일지라도
끝내 살아
우리 곁으로
돌아온
아름다운 희망이여
깊이 깊이
대지에 뿌리내려
힘을 키웠던
민중의 꽃이여
돌 우에도
담벼락에도
그늘진 삶에도
싹을 틔워
끈질기게 핀
우리의 사랑이여
촛불 하나
밝히는 간절함으로
함께 하리라
꼭 지켜주리라



긴급조치 기록을 찾아서

어제는 돌풍이 불고
 간밤 봄비가
 대지를 적셨구나
 오늘 아침
 그해 그날처럼
 외로이 나의 길을
 찾아 떠나며
 시 한 편 남기네

대전 국가기록원으로
긴급조치 관련
서류를 떼러
34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네
아우성치듯
쏟아지던 눈보라가
분단 산하를
세차게 때리던
군복무때
유신정권은
젊은 문학도에게
수갑을 채웠지
아픈 기억
저항의 시대였거늘
이제 위험판결이
내렸다니
재심청구를 하고
형사보상 국가배상까지
소송을 해야지
국민 기본권을 위하여
땀흘린 민변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겠네
박정희시대 역사는
안개 속이지만
내일이면
미친 재판 기록들
밝혀지리니
빠앗긴 그 세월
돌아가지 못한 교단
악몽의 유신시대
잊지 말아라



내가 스마트폰을 바꾼 이유

비오는 날 폰을 바꿨다

4G LTE 갤럭시로

시인에게도

떨어질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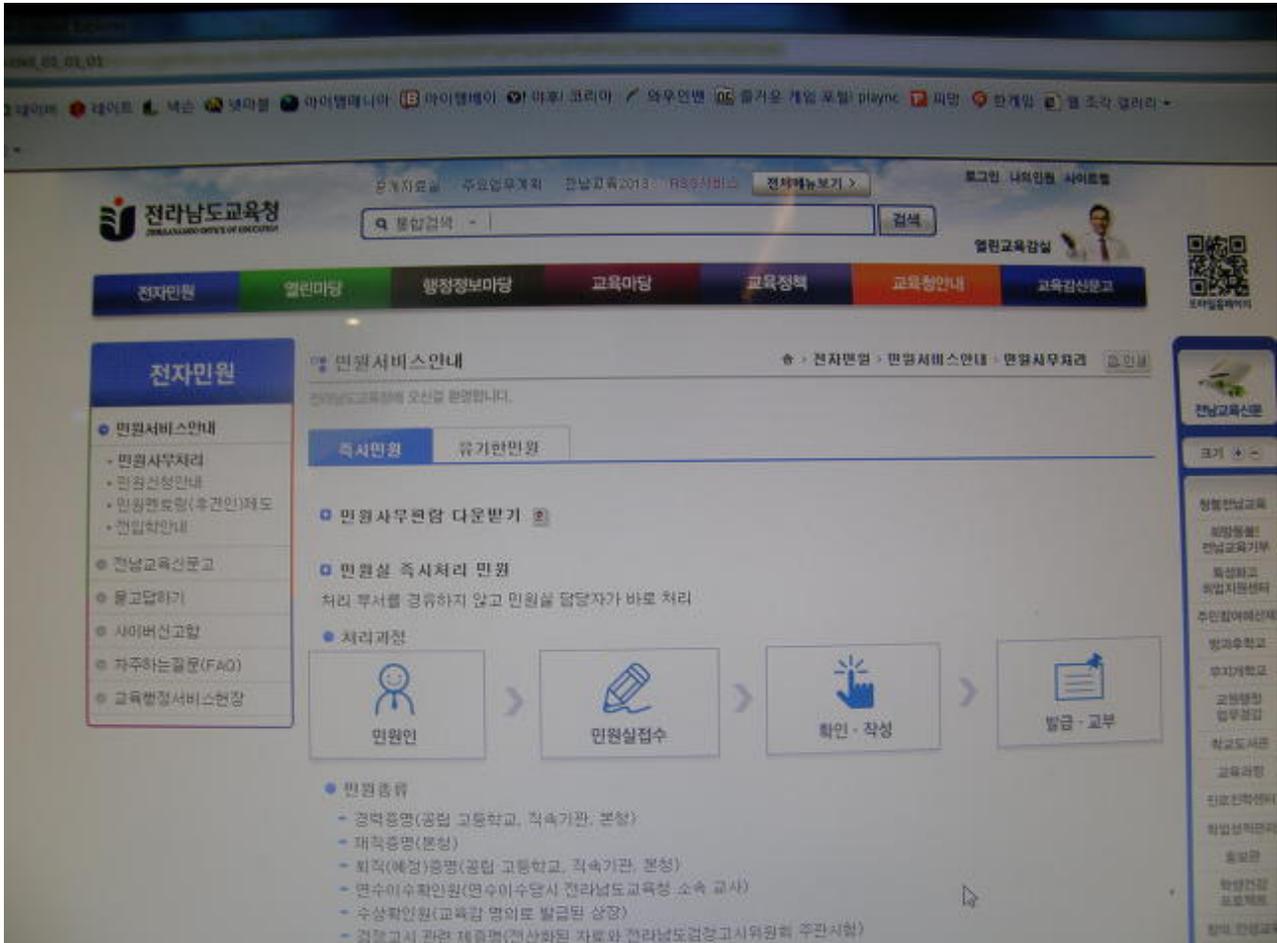
벗 하나 생긴 셈이다

페이스북 전화

메시지 일정 인터넷까지

내 손 안에 있다

컴맹 뎨 지가
새천년 들어서니
세월 참 빠르다
요금이야 올라갔어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면
까짓것 감수하겠다
먼 길 떠날 때
요긴하게 쓰겠다
서러운 사람들
사진 한장 소식 하나
폰카로 찍어
널리 알리는 일도
시인의 몫이다
비상금처럼 아끼며
오늘을 버티겠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누가 알라

난생 처음 전화를 다 했다

전남도교육청에

교사 경력증명서를

떼려고 하는데요?

언제 퇴직하십니까?

1980년 7월 25일요

예? 1980년?

최종근무지는 완도
신지서중입니다

탁탁탁 쳐 보더니
지금은 신지중인데요?
아 선생님 파일이 있습니다
국어선생님이셨죠?
내일 아무 학교나 가서서
팩스를 주시면
5분만에 보내겠습니다

기막힌 내 사연을
뉘 있어 알 수 있으랴
남몰래 흐르는 눈물
공원으로 가서
홀로 담배 한대 피웠다

긴급조치 9호
위헌판결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하다
징역살고 나와
복직했다가 저 살인마
전두환에게 짚렸다

그후 창신고 사립공채에
합격해 근무하다
또 다시 짚렸다
중등 2급 정교사자격증까지
박탈시켜 놓았다

파란만났던 젊은 시절
시인은 되었지만
박정희때 구속당하고
전두환때 짚리고
교단 진출이 봉쇄된
그 세월이 아프다

특별법이 아닌
민사소송이라 힘들다
이럴 때 누군가
쓴 소주 한잔
사줬으면 오죽 좋겠다



나의 민원 1AA-1304-100732

오늘 달이 보름달이다
팩소주 하나
챙겨 밖으로 간다
1주 전 신청한
형사판결문 서류는
담당자 배정 순
아직 답신이 없다
우리가 살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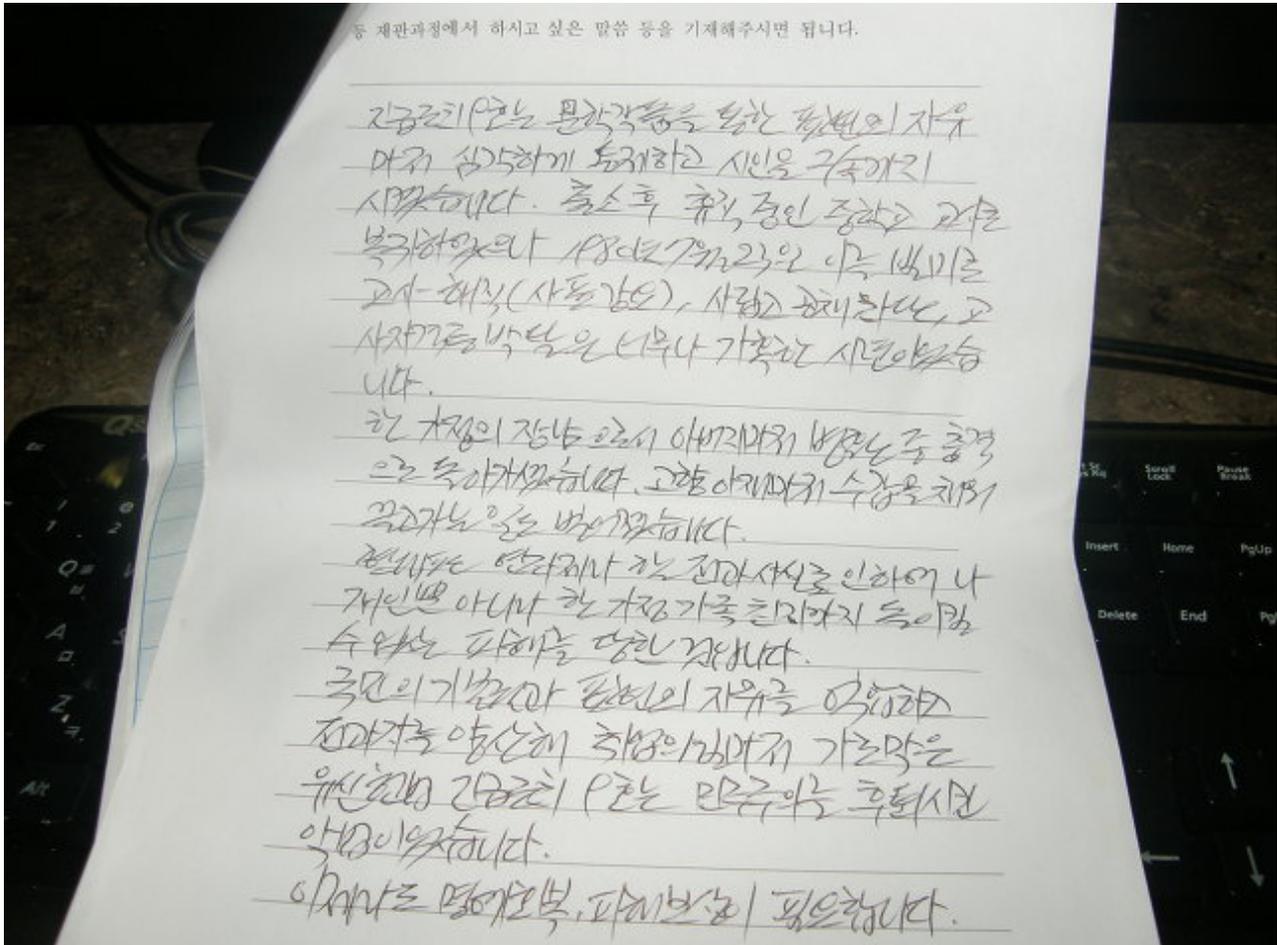
유신시대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역사의 교훈으로
깊이 새겼으면
얼마나 좋으랴만
박정희시대도
전두환시대도
한갓 옛이야기일까
이등병의 편지
그 종이에 쓴
통일시 한 편이
긴급조치 9호 위반
징역 2년이였다
훗날 교사해직 건수였다
34년이 흘렀다
지금 국가기록원에
내 기록이 없다
그래 육군본부로
민원신청을 넣었다
군사재판 건은
이관되지 않았다
부마항쟁 관련자도
마찬가지였다
긴급조치 재심청구할
입증서류를
기다리며 피가 탄다
보름 내지 한 달?
인터넷 민원은
바뀐 군대를
실감케 하였지만
나로서는
불면의 밤이다
이천 장호원 육군교도소
충남 계룡대
육군기록정보단을
찾아가야 할지도
모를 나의 재판기록
우리가 살았던
유신시대의 아픔이다



오늘 하루 기록도 소중한다

어깨 통증에 잠이 깨다
새벽달은 흐리고
내가 딛고 사는
세상은 참 불안하다
전쟁 위협도
박근혜 정부도
다 절망을 부른다
언제부턴가

시인이 맨 배낭
전쟁 나면
3일간 버틸 수 있으려나
등산장비 비상식량
서류 책 등을
넣었으니 무겁다
행사 모임 참석했다가
술 한잔 하고
밤늦게 돌아온 어제
허리 통증으로
남해 설흘산
정기산행도 놓쳤다
파스 3장 붙이고
이제사 컴 앞에 앉아
몸을 추스른다
자신의 운명이란
제 스스로
챙겨야 한다
먼 훗날 기록삼아
시 한 수 남긴다



쉽게 써 버린 긴급조치 진술서

- 진술서를 너무 쉽게 썼다
- 한 PC방 구석에서
- 긴급조치 9호 그 시절
- 통일시 한 편도
- 취중 발언도
- 잡혀가던 시대였다
- 결면 다 걸리듯
- 유언비어 유포죄로

징역형 선고
직장 해고
그리고 빨간 줄로
늘 감시당했다
그때로부터
그 자신과 가족까지
피해를 입었다
34년 전 일이건만
1140명이
당한 고통의 세월이
누구라고 다르랴
민변 지원으로
재심청구를 하고
형사보상 국가배상을
받아야 한다
아픈 상처가 아물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나의 젊음 나의 시 후회는 없다

시가 내게로 오지 않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라
꼭 필요하면
시는 절로 떠오르리니

돌아보면 아픈
내 젊음 문학도 시절
시를 찾아서
방황한 적 있었지

시여 라고 말을 건네며
하염없이 거닐던
어설픈 추억의 조각
그땐 왜 그랬을까

삶에 튼튼히 뿌리내려야

사람사는 세상을
민중과 함께
끝내 보고야 마는 것을

교수가 가르치는 문학을
너무 믿지 말라
서양것이 우리것을
대신할 수 없지 않나

이제 문학청년이 되자면
제 선 자리에서
하루를 값지게 살라
시는 어느새 벗이 된다



초승달이 칼날처럼 빛날 때

시인인 내가 어느새
안부 걱정받을
세월이 돼 버렸나

형님 별일없습니까
낮익은 목소리
요새 안보인다며

어디 아픈지 묻는
전화를 받다니
잠시 뒤 형수가

유동렬씨 괜찮나며
무슨 일 생긴 듯
시인을 챙겨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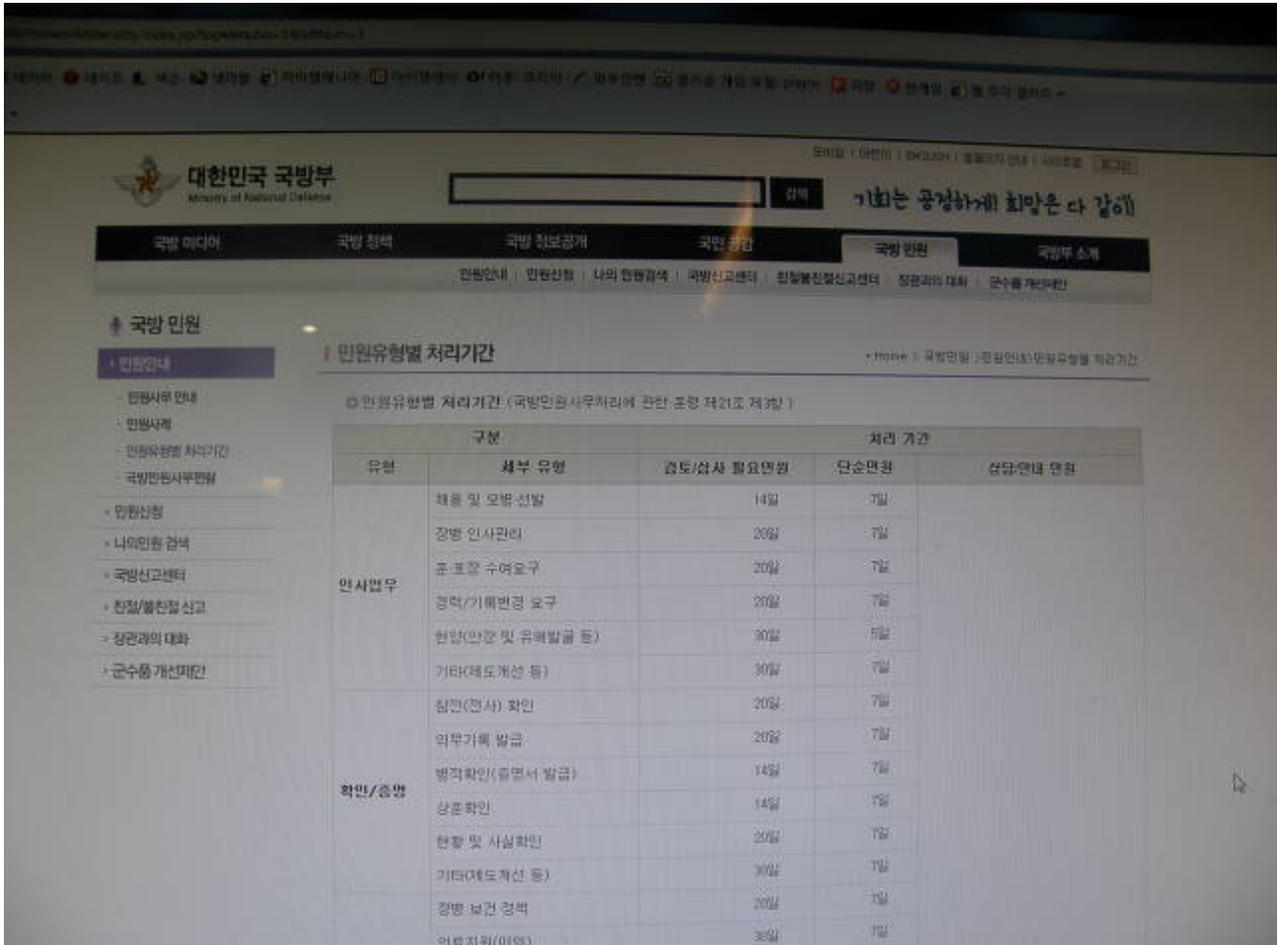
밥은 하루 한끼로
떼우고 술 한잔
내 거쳐 아는 이

그 아무도 없으니
행여 쓰러지면
마산의 손실일까

그래서 요즘 들어
여태 살아왔던
흔적을 정리하며

적어도 연말까지는
버텨 보려 한다
어느날 사라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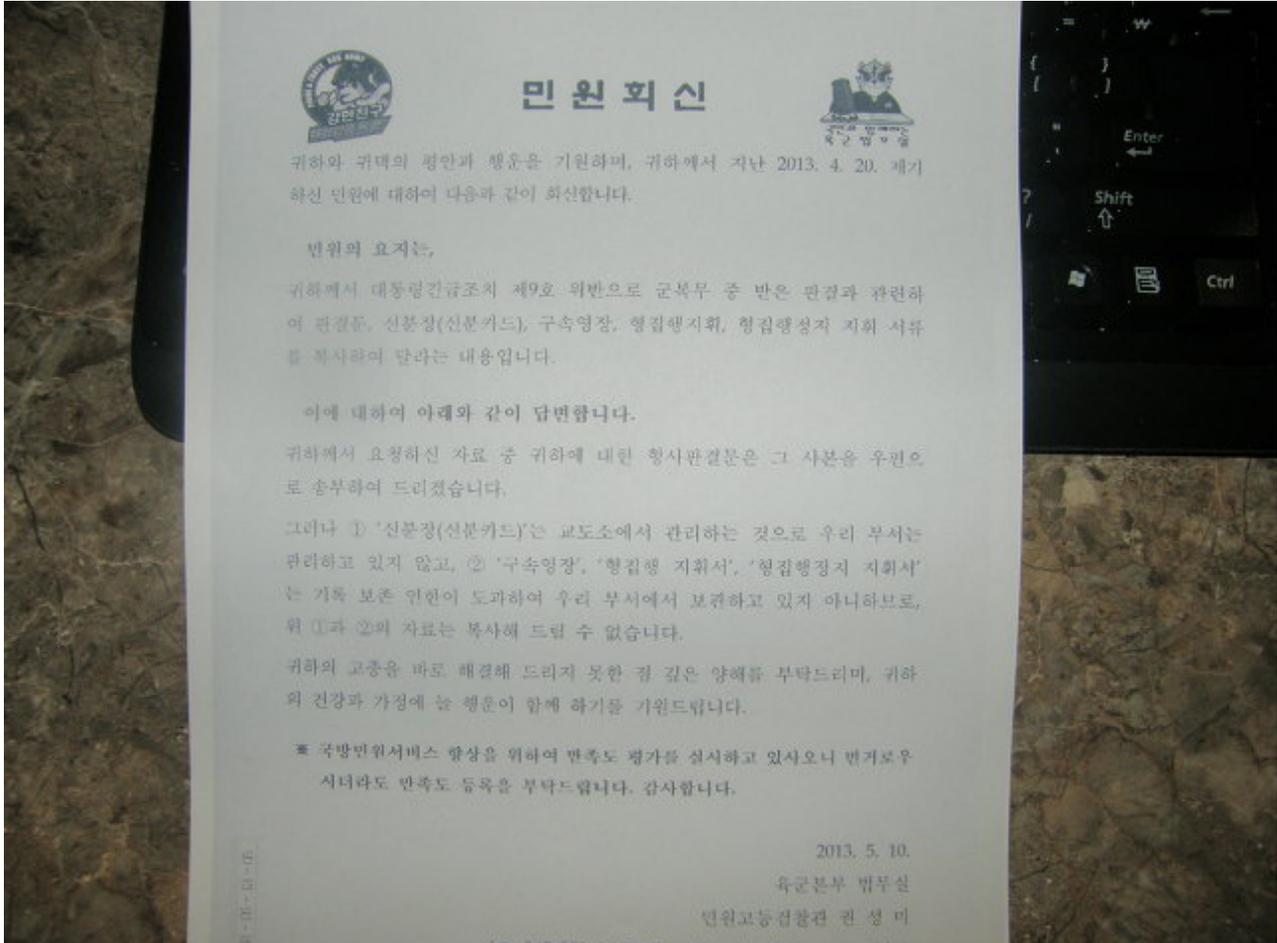
후회할 일 없도록
죽을 권리도
나에겐 없거늘



비오는 날 내 마음도 적셔주려마

오늘 아침은 비가 내리네
 모자도 옷도 젖지만
 타는 내 마음은
 쉽사리 식지 않는구나
 신경 많이 쓰면은
 속병만 깊어진다는데
 34년 전 겨울
 포승줄에 묶여 체포된 그날

판결문 신청한 지가
20일째이건만
국방부 민원은
아직 답신이 오지 않고
1달을 기다려야 하나
긴급조치 위헌 판결
재심청구를 위한
서류 갖추느라
4월말 기한이 지나
5월 내내 고심하는 나
부마항쟁도 일반법이라
진상규명 보상마저
반쪽이 될 판이네
한 1년 걸릴지 모르는
민변 재심청구
형사보상 국가배상 소송
박정희 유신독재를
단죄하는 일이고
국민기본권을 되찾는
시대의 과제이거늘
긴급조치 9호 2년 선고
그 시절의 아픔
아직 아물지 않았어라
빗 속을 걷는
이내 심정을 뉘 알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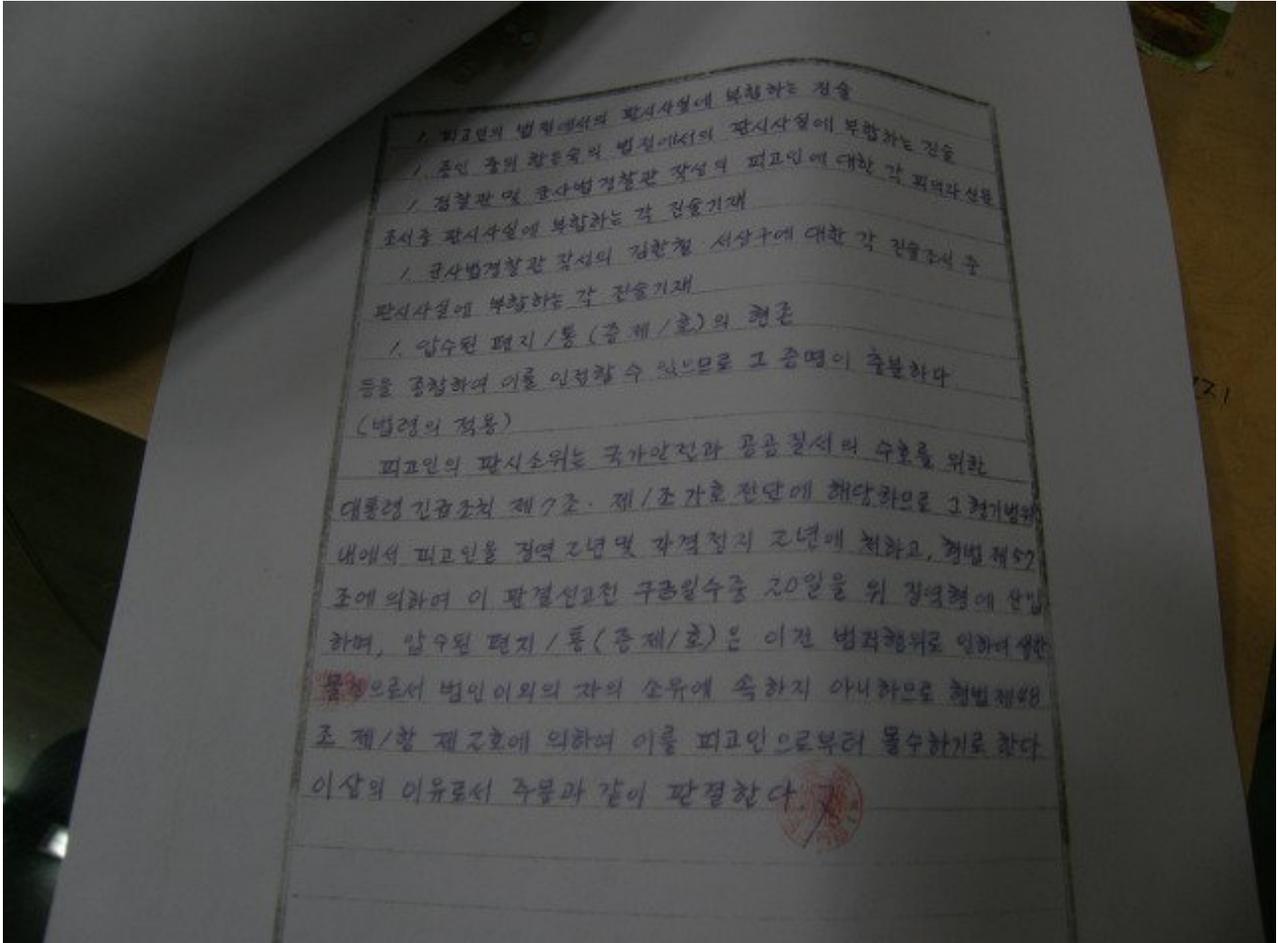
새로운 시작의 날을 기다리며

국방부 민원 답변이 왔다
34년 전 판결문
사본을 부쳐주겠다고

국민신문고가 20일만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재판기록을 찾아
이메일로 알려왔다

내겐 지나간 세월이었다
79년 1월 체포돼
남한산성 하안방에서 보낸
한창 젊었던 그 시절

이제 재심청구 서류는
갖추게 되었으니
새롭게 시작해 보자



시가 왜 범죄행위냐고 묻는다

우편등기로 부쳐져 왔던
판결문을 펼치는
내 가슴은 쓰라리다

34년 전 그해 79년 1월
긴급조치 9호로
재판받았던 기록물

시 1편에 징역 2년을
때린 유신독재는
피도 눈물도 없었다

웬지 울컥하는 오월에
부마항쟁사업회에
재심서류를 맡겼다

민변에 접수 보고하고
변호사가 작업해
연락해 준다고 한다

슬픈 과거를 들추면서
내 마음은 아프다
통일시는 죄가 없다



김미희가 걸어온 길
 *전남 목포 출생, 목포여고 졸업 *서울대 약학과 졸업 *2대,3대 성남시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직인수위원장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고문
 *성남시재개발세입자협의회 지도위원 *성남시초등학교학부모회장협의회 대표
 *제19대 국회의원(성남시중원구/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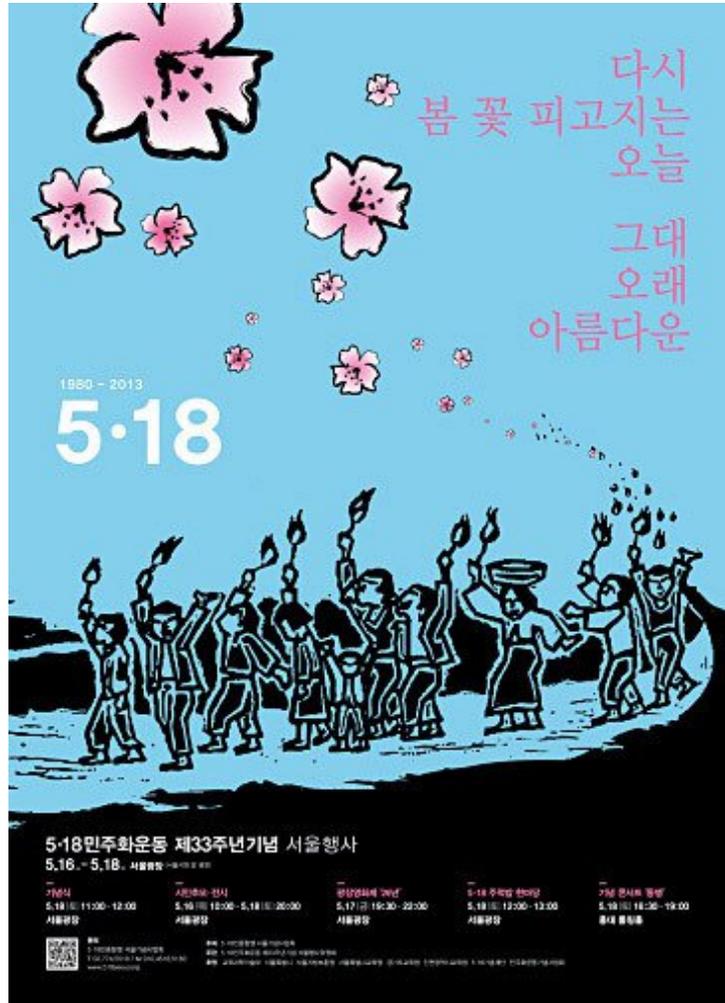
개인후원금 10만 원까지는 연말세액공제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개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10-2182-61(국회의원 김미희 후원회)

김미희 국회의원을 응원하며

십년지기라 해야 될까
 블로그이웃이자
 폐벗인 김미희 국회의원
 얼굴 좀 봅시다라고
 전화를 받은 적 있지만
 한진 집회 부산역
 거기도 못 갔고
 일산 킨텍스 당대회에도
 참석치 못했다가
 진주의료원 대토론회
 도의회에서 마주친
 내 시집 서평을 써 준
 평론가 선생이다
 며칠 전 받아본
 이메일 의정보고서
 활기차고 힘난다
 그 한 사람의
 진보당 국회의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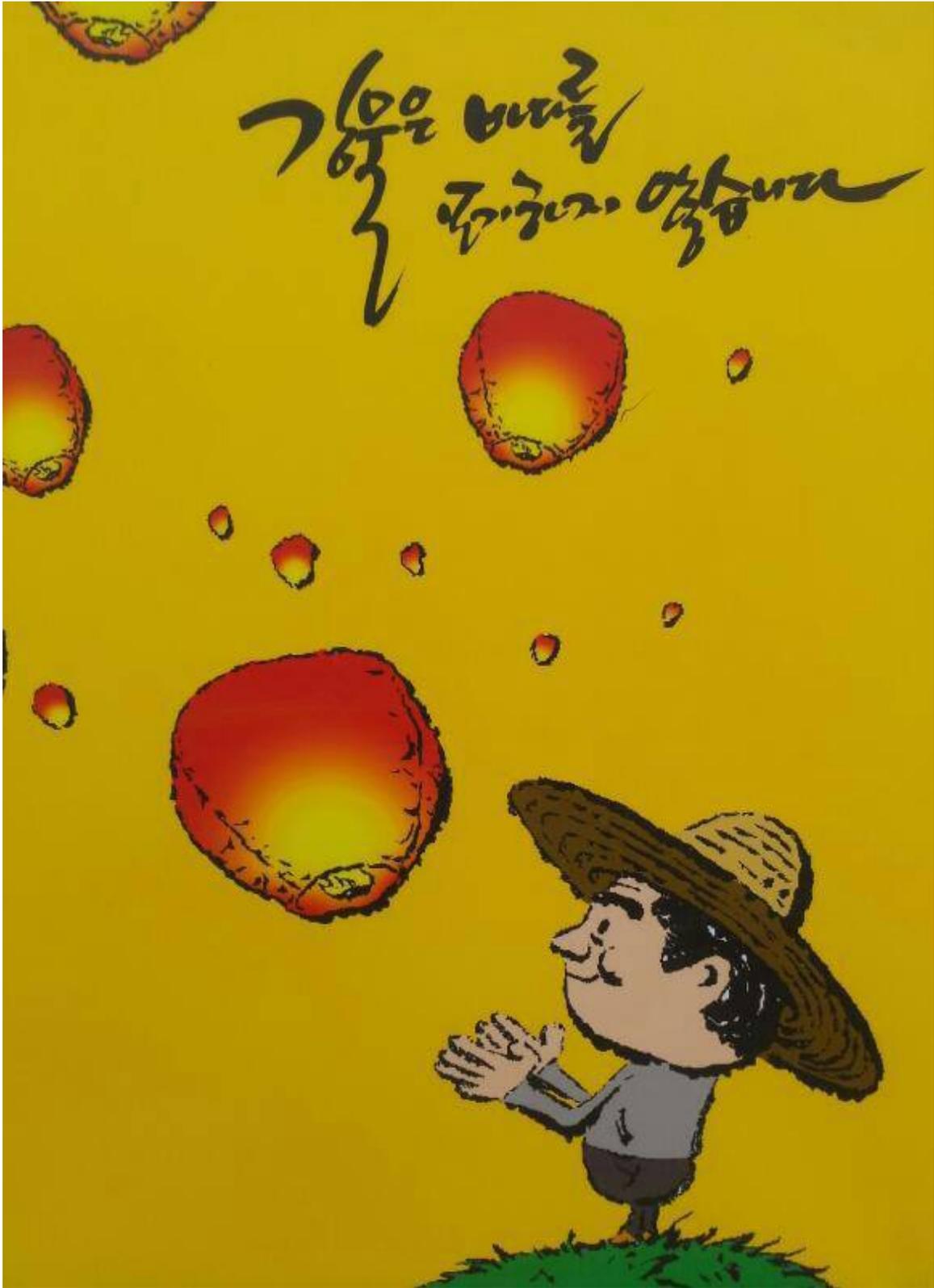
열 사람 뭉이다
온갖 시련을 다 이기고
민중과 함께
우리나라의 내일을 여는
참된 일꾼이다
웃음을 잃지 않으며
현장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의원이 걸어온 길은
바로 우리
노동자 서민이
함께 가는 길이다
성남의 아름다운 희망을
둘 우에 핀 그 꽃을
소중히 가꾸자



내 다시 목놓아 부를 오월의 노래

당시 나는 중학교 선생이었다
 전라도 완도 신지에서
 광주 친구들 보러 왔다가
 5.18 항쟁에 뛰어들었다
 전남대와 금남로
 잊지 못할 민주화의 함성이
 기나긴 압제를 뚫고

온 거리에 울려퍼진 그날
최루탄 곤봉도
공수부대 총검도
피끓는 젊음을 막지 못했다
밤을 지새운 다음날
살인마 전두환
피의 학살이 시작됐다
터미널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긴 했지만
섬마을 TV를 보며
장한 시민군 시위대
굴하지 않는 혼불들을
기슴졸이며 응원했다
79년 10.18 부마항쟁처럼
억눌린 민심은 폭발했다
군사독재의 총칼도
잔인한 살륙도
80년 5월 빛고을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이제 33주년이 되는 날
망월동에 몸누인 전사들
꽃잎처럼 산화해 간
민주영령들에게
삼가 엎드려 술 한잔
국화꽃 한 송이 바친다
오월 그날의 항쟁
오월의 노래는
산 자들에게 희망이다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말하고 싶다네
노무현을 넘어
이제 진보의 길로
사람사는 세상을 찾아서
우리 함께
손맞잡고 가자고

오늘 서거 4주기
아픔으로 되살아오는
부영이바위에서
그가 겪었을
고뇌는
산 자들의 숙제려니

추모인파 봉하마을로
서울광장으로
부산대로
달려간 슬픈 날
나는 노무현정신을
기리고 싶다네

참여정부 공과를 짚고
죽음을 넘어
다시 희망으로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일어서야 하리라



하루가 피말리는 싸움같은

어제도 새벽달을 보며
내 거처로 들었다
밤새 웹상으로 작업하는
습관이 붙어버렸다
심상찮은 이슈는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이건 부정선거이고
머잖아 불붙을 도화선이다

또 경남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공방
밀양 송전탑 공권력투입
어디랄 것 없이
처절한 싸움판이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99% 서민은
나가 죽어란 거다
광주항쟁 33주년
노무현 4주기
뜻을 기리는 날이건만
온 나라가
아우성이고 난리다
쉬 잠들지 못하는
슬픈 대지 위에
달빛만 처연히 밝다



부산행 버스 낙동강을 지나며

그때는 탈출하고 싶었지
박정희 유신독재
숨막히던 부산땅에서
반란의 땅 전라도로
자원발령을 신청했더랬지
부산대 사대 국어교육과
졸업논문이란 게

유랑민의 삶을 노래한
청산별곡이었지
정지용 김수영 시를
무척 좋아했지만
으레껏 통과의례였지
그 당시 내겐
문학이야말로 비상구였네
창비 씨알의 소리
잡지를 읽으며
순수에서 참여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경상도를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쳤됐지
전남으로 발령을 받아
농촌 섬마을에서
중학교 선생을 했지
개인보다 사회를
중시하며 쓰곤 했어도
채 피지 못한 시편들
문학청년의 방향은
오랜 시행착오를 거친 뒤
민족민중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지
그러다 긴급조치 9호로
징역살이도 하고
부마항쟁 광주항쟁에
불나비처럼
피끓는 젊음을 태웠지
참 격동기였네
핏빛 광주가 진압된 후
교단에서 해직되고
나의 삶도 고통이었지만
34년 전 그 시절
지금도 후회는 없네
모처럼의 부산행 버스에서
잊지 못할 추억은
저 낙동강처럼 흐르지



이제는 아픔을 끝내야 할 때

어제 밤새도록 앓았다
세상이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분단병에 시달렸다
꿈 속에서도
가위눌려 괴롭힌
군 의문사
23구의 시신이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낮은 국가보안법에 묶여
감옥살이하는
양심수들이
눈에 어른거렸다
원전 전력공급뺨에
밀양송전탑 반대
노인네들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땅
진주의료원 공공의료
없애려 폐업 강행하는
불통도지사의 횡포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대한민국 정부란
서민은 안중에도 없다
전쟁발발 일보직전인데
남북대화조차 없이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한심한 나라
이 모든 게
일제잔재 독재잔재를
청산 못한 탓이고
통일을 이루지 못한
지구상 단 하나
분단된 한반도 탓이다
내가 밤새 앓았던
분단병이야
언제쯤 치유될런지
함께 사는 세상은
언제나 올런지
달빛은 환히 밝건만
내 마음은 어둡다



우린 어디쯤 왔는가 묻자

산을 오르는 일도
한걸음부터듯
다른 세상을 찾아가는
그 마음도
한결같아야지
노인이 산을 옮기는
첫 호미질처럼
우직하게
갈 길을 가야지
때로 끊기고
돌아가도
오직 하나 희망을
발견하였다면
다시 일어나

산 넘고 물 건너
그곳으로
쉽없이 가야지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소중한 오늘
아직 길은 멀어라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희귀

모두가 하늘이다 함께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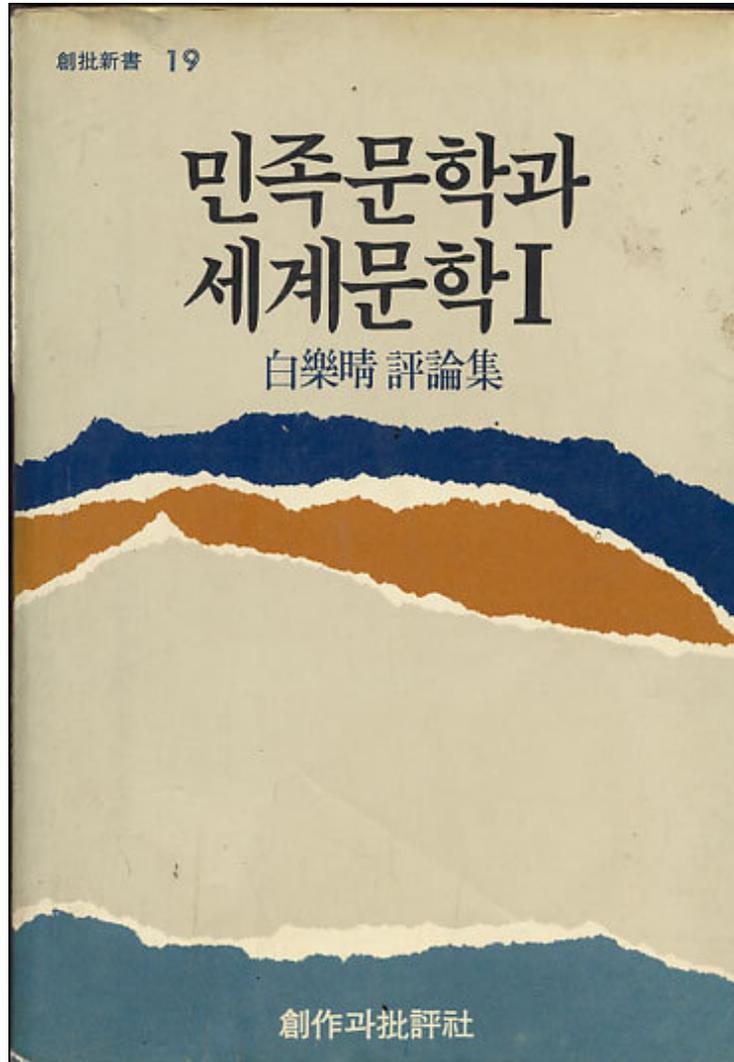
비온 뒤 날은 흐리고
별빛조차 사라진
한밤중에서 새벽녘까지
블로그 페이스북에
뉴스 검색으로
내 뒀에는
희망이란 걸 찾다

이 시각에도
잠 못 이루어 뒤척이는
이웃들 얼마라
연일 사건사고에다
불안한 대한민국

박근혜 새누리당엔
영 절망이다

전국 어디랄 것 없이
처절한 절규다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
저 밀양 송진탑
진주의료원 사태
목숨을 건 투쟁이다

달리 길이 없다
잘 뽑았어야지 라고
후회한들 늦었다
함께 살 길은
피플파워 그 힘뿐이다
깨어 있는 행동하는
국민의 힘이다



시인의 인생역정을 기록하며

정작 내가 민족문학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은하수가 뜨고
눈보라 아우성치던
전방 군복무때다

창작과 비평을 애독하며
분단으로 인한 고통
통일의 길을
고민하다가 징집됐다
시 한 편 쓰기란
역량이 미숙했지만
초병근무 중
후렛쉬로 문고판도 읽고
수첩에 시도 썼다
철조망에 가로막힌
남북산야가
아프게 다가왔다
155mm 곡사포
M16소총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통일이 돼야지
머릿 속을 맴돌았던
78년 말 강원도
국어교사 문학청년은
시가 무척 그리워
급기야 사고를 쳤다
야전병원에서
차분히 돌아보며
편지지에 써 내려간
남북통일 시
지금은 외우지 못해도
흰웃입은 겨레의
분단 고통을
선 민주화 후 통일을
노래한 작품이었다
부치지도 못한 채
79년 초 겨울
덜컥 체포됐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그 시절 고난은
광주항쟁 진압직후
80년 7월
교사해직과 함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70년대 민족문학은
내게 시련을 안겨줬지만
시대가 변했다 해도

미완성인 채
무엇을 쓸 것인가
또 다시 묻는다



공과금 자동납부기 앞에서

난 낮설다
공과금 자동납부
저 기계
모든 게 다
조지 오웰의 1984년
그대로다
지금 주민증 하나면
신상을 털듯
찍힌 코드 하나로
체크가 되니
사람보다
전산망 세상이다
마치 카드로
변신한 기분이다
난 서투르다

원하지 않아도
길들여지는
시스템이
웬지
옛날이 그립다



야생초에게 말을 건네며

범의 귀 미안하다
제대로 한번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꽃이 피고 저도
내 마음은
겨를이 없었다
돌나물꽃에게도
안부 전한다

골목길에서 마주친
야생초 들꽃들
오늘만큼은
카메라에 담겠다
별 한 마리가
날아와 꿀을 따는
뒷발 언저리
돌보는 이도 없건만
절로 피어나서
꽃밭을 이루었다
사노라고
그간 무심했다

평화기원 당원단합 등반대회

함께가요...



진보라와 함께 나는 갈테야

새벽 4시 절집에서
쇠북이 울린다
야옹이 밥을 챙겨놓고
일찍 길을 나선다
오늘은 통합진보당에서
고성 연화산으로
평화기원 등반대회를
떠나는 날이다

옛 민주노동당 시절
분회 야유회 이후
창원시위원회가 여는
야외행사 참석이
나로선 오랫동안이다
한때 옥천사로
찾아갔다가
대숲에 이는
바람소리에 반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창동 문화공연 사진글
포스팅은 미뤘다
자꾸만 촛불집회가
생각나서이다
잠들면 못 깰까 봐
산행지도를 꺼내
코스를 익혔다
지역 현안이 많지만
반전평화 운동이
절실한 때다
내 한 사람 힘이라도
보탬 수 있다면
기꺼이 가겠다



박통의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지금 그 당시 시는
 내 손에 없지만
 박통 하니까 떠오르네
 섬마을 하숙방에서
 절간고구마
 중간상인 횡포를
 시로 써 본 것이
 중학교 출근한 사이
 방을 수색당했지
 10.26 의거로
 유신의 심장이
 총 맞아 쓰러지고
 한창 민주화 열풍이

전국을 휩쓸 때
완도서에 연행돼
조사받은 적이 있었지
그때 왜 박통이라고
썼느냐 문데
비꼬는 말이라며
조사만 받고 나왔지만
독재자는 살아
우리를 통제하였지
박통 취임 100일
난장판 나라지
어디 한군데라도
온전한 곳이 없거늘
다시 부마항쟁
광주항쟁을
부르고야 말 지경이지
억눌려 살 수 없어
터져나오는 열망은
막을 수가 없지
34년 전 일이
옛날같지 않아라



꽃들도 잠이 든 한밤중에 쓰다

한낮은 덥고 밤은 선선타
꽃도 잠든 이 시각
아옹이들 뛰노는 텃밭
별 서너 개 떴다
올해 들어 돌아보지 않았던
내 댄엔 도시농업
뜯어먹곤 했던 질경이
상추 들나물 취나물

민들레 쇠뜨기
머위 냉이 범의 귀
고들빼기 잎들도
손길 한번 주지 못했다
장미꽃 방울꽃에도
눈길 한번 주지 못했다
언제 피어났는지
이름모를 노란꽃 곁에서
담배 한대 피우고
쉬었다가 나오는 길
꽃보다 덜 잔다
사는 게 딱딱하다
도둑맞은 시집 놔 두고
스무 권 정도 남았다
연말까지 버텨야겠는데
무슨 수가 나겠지
잠 못 드는 시인에게
오늘도 새벽달 보며
거처로 돌아가게 생겼다



망종〈芒種〉

2013년 6월 5일

땅의 사람들 그리워지는 날

절기도 잊고 지낸다
보리 베어내고
벼모를 심는 망종
고성 연화산 산행길에

보았던 논과 밭
한창 바쁠 때였지
떠나온 지 오래 된
농촌 들녘엔
아련한 향수가
새록새록 살아 숨쉬지
식량자급률 26.7%
우리농업 밥상이
위험에 처했지
민중농활도 가야는데
몸이 따르지 않고
도시농업도 제대로
일구지 못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외침이 쟁쟁하다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대파 당근
사과 배 감귤 한우까지
16개 품목을
꼭 지켜내야 하건만
수입산이 판쳐도
무심코 지냈지
선거때면 농민당이
진보당이라 불러주던
그 마음이 아프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농삿일 풍경
예사롭지 않았다



다시 열사들 앞에 나의 삶은

앗, 자고 일어나니

6.10 이구나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결승전 보고 들어와

천원짜리 파전에

팩소주 마시고

초저녁에 누웠다가

잠이 깨 보니

저 87년 유월항쟁

젊은 그날이다

해마다 이날을 맞으면

투쟁 결의를 다지며

내 삶을 돌아보던

기억이 선하여라

너나없이 떨쳐 나선

민주화 물결을

우린 잊지 못하지

저마다 하나

무용담을 간직한 채

술잔을 부딪치던

그때로부터

정권이 다섯 차례

바뀐 지금

이한열 열사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7,8월 노동자 투쟁

도화선이 됐던

유월은 어디에 있나

하 수상한 세월에

그날 그 마음

꼭 새기고 살자



저 꽃도 내게 희망일 수 있다

어제 동창회 갔다가
술 한잔 하고
늦게 일어난 아침
텃밭에 핀 달맞이꽃
비에 젖는구나
사각지대에 사는
가난한 이들
마른 가슴도 적셔주는
단비가 되었으면
오죽 좋겠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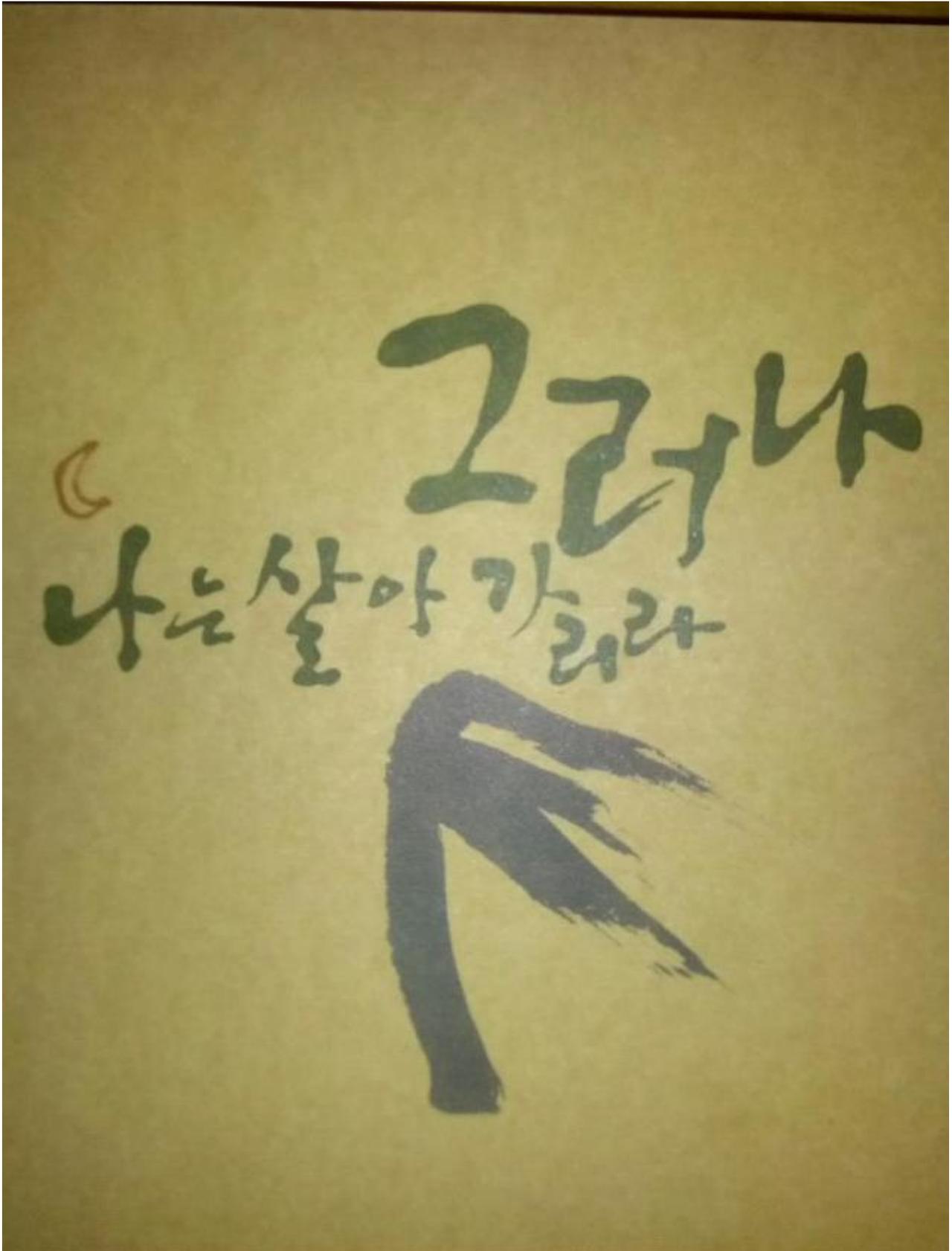
레미제라블
이야기는 끝없다
밤새 복지 생각으로
뒤척이다 깨어나
마주친 야생화
빛 속에서 울어에는
까치처럼
반가운 이웃인가
오늘 저녁엔
6.10항쟁 기념행사에
가 보아야겠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래 이거야
615선언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얼마나
멋진 상봉이더냐
잊지 못할
그날의 약속
남과 북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정상
만나서 합의한
통일이정표
2000년 6월 15일
그날 이후
금강산으로
개성공단으로
평양으로
서울로 오가며
교류하였지
615만 지키면
이산가족
피눈물 세월도
더는 없다
전쟁을 막는
단 하나
평화의 길이다
이제라도
615처럼
민족공동행사를
열어라



전쟁같은 오늘 하루를 보내며

허리에 파스 붙이고
웹작업을 한다
장마 시작되기 전 마산은
무더운 날씨이다
1주일이면
무거운 배낭을 벗겠다
시집 보급 끝
긴급조치 9호 재심은
올 연말쯤 될까
간편한 복장으로
카메라는 목에 걸고
길을 나서야겠다
이 땅의 시인 노릇하기란
한시도 경계를
계을리 할 수 없는
초병이나 마찬가지로
저 숲속홍길동같은
1인활동가이다
여력이 되면
서울 부산 광주라도
달려가고 싶건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민중의 삶은
끈질기다 투쟁도
평화와 전쟁 중
선택해야 될 한반도
내일이 6.15다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내 갈 길은 간다



다시 한번 투사로 살고 싶은

내 몸 상태를 보자
 허리에 통증
 목 왼쪽이 빠근
 며칠 사이
 피로가 쌓여 그런가
 하긴 올빼미족
 다 됐으니
 성할 리가 없지
 고교 친구를 만나서
 모처럼 굴삼계탕
 한 그릇 먹고

파스 진통제
좀 사달라 해서
누웠다가 나오니
살 만하다
벌써 나이탓인가
내 마음이야
그날이 다시 오면
짱돌 쇠파이프
화염병 들고
적들과 맞서서
독재타도 노동해방
구호를 함께 외칠
투사이건만
부마 광주 유월
7,8월 투쟁에
온몸으로 싸웠던
옛 추억만 남았는가
낮은 집 낮은 방
전기도 물도
끊겨 버린 거처에서
올 연말까지만
버텨 보자
외로운 저항시인
이제 몸이라도
아프지 말자



혜화동에 승리의 북소리 울리기를

장맛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날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라
지워지지 않는 자욱처럼
내 눈에 밝히는
얼굴들 떠오르거니
오랫동안
우린 잊고 지냈다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 사람이
재능교육 여성노동자가
133일째!
해고자 원직복직을
단체협약 체결을
외쳐부르며
이날 이때까지
고공농성 중이다

오늘로써 농성투쟁
2007일째!
사측의 노조 불인정
교섭 회피에 맞서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동지들 있다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주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발딛고
살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도록
혜화동에
승리의 북소리가
울리게 하자



철도는 우리의 가슴으로 달린다

마산역에 다시 파업가가
울려 퍼진 그날
국민의 발 국민의 재산
철도는 동북아 대륙으로
통일산천의 길로
달려가고 싶었거늘
누가 이윤의 도구로
민영화 꿈수를 부리나

일당백으로
철도노조 조합원
뚝뚝 뭉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할
첫 결의대회여
"우리는 동료들의 힘을
믿습니다 투쟁!"
"민영화 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자본가의 돈이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철도가 달리게 하자고
외쳐 부르는구나
신자유주의 망령이
박근혜 거짓말이
국민 재산을
팔아먹게 둘 수 없어
그 어떤 탄압이
시련이 닦쳐온다 해도
70% 넘게 반대하는
민영화를 꼭
막자는 결단의 시간에
우리 함께 부르는
파업가여
철도노조 깃발이여
기관차 승무지부
시설관리지부
전기조합원 동지들
시민사회단체
통합진보당 모두
한목소리로
"분할민영화는 재앙이다"
위험에 처한
100년 철도를 지키고자
떨쳐 일어섰구나
오늘의 마산역
야간 총력결의대회에
사람들이여
"승리해야 합니다"
응원을 보내 주어라



용추폭포 계곡길을 따라가며

문경 대야산 오르는 길
용추골 깊은 계곡
선유동이 따로 없네
산들강 오랫동안에 대하니
내 아픈 몸도
절로 낫아지는구나
초록빛 여름산
맑은 물에 잠시

소금땀 얼굴을 씻고
웹에 중독돼
자연을 잊고 사는
나 자신을
일깨워 주는 산
푸른 산 푸른 물에
담겼을 역사여
저 능선 골짜기마다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에도
겨레의 비원이 서렸거늘
산에 드는 발걸음
조심스러워라
속리산을 잇는 이 산
오늘은 계곡에서
한참 머물고 싶었네



우린 마산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마산아 내 고향 마산아
너를 다시 부른다
이름마저 빼앗긴 3년
통합창원시도 균형발전도
다 거짓말이었구나
비내리는 마산역에서
타는 분노여
마산독립 외침이여

여야 시의원 시민단체가
하나가 된 오늘
첫 단추가 잘못 꿰인
통합을 심판하는
오적 화형식을 보아라
저 불길 속에
사무친 서러움이
마산발전의 염원이
활활 타오른다
통합청사가 아니 되면
야구장이라도
유치해야 됐건만
마산은 아예 없었다
통준위 합의는
과연 어디로 갔나
이러고도
갈등을 해결하자고
감히 지껄이는가
빛 속에 삼삼오오
모였던 마산인들이여
우린 속았다
3.15, 10.18의 고장
그리운 마산을
되찾아 오자
마산아 내 고향 마산아
너를 다시 부른다



저 달이 지기 전에 나는

블로그에 사진 글을
올리고 나니
벌써 한밤중이다

거리 위에 달은 뜨고
피곤한 몸을
벤치에 잠시 쉰다

내가 봤던 핫이슈란
국정원 촛불
3.15 부정선거다

오늘은 겨우 일어나
아트센터에서
미술전 정보센터

두 군데 행사장을
카메라에 담고
SNS로 소통한다

뉴스 검색 폐북질에
좋아요 누르며
일정을 체크했다

밤하늘도 현시국도
어수선하지만
내 할 일은 한다



다시 헌법 제1조를 목놓아 부르며

아! 이 노래 얼마만이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촛불항쟁의 함성이
짙짙 울려퍼지는
창원 상남시장 거리
"부정선거 민주주의 파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피켓이 넘실댄다
6월 28일!
첫 가두시위다
시국선언 촛불집회가
어디랄 것 없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야3당이 노동자가
청년학생이 종교계가
민주시민들이
누구랄 것 없이
"국정원 부정선거 규탄"
"민주주의 수호"
분노의 목소리로
오늘 거리에서 외쳤다
18대 대선은
국정원 친위쿠데타였다
5.18과 6.10이 이룬
이 땅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
국정원도 경찰도 대통령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아! 이 노래 얼마만이냐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 목놓아 부른다



작은 꽃도 희망이 되는 세상

아픈 몸도 낫겠다
저 꽃을 보니
바위 틈에 뿌리내려
오각별 꽃송이를
피워 낸
기린초가 대견스럽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삶일지라도
탓하거나
절망하거나 않고
한데 어울려
나만의 꽃을 피워
살아가는 것
이 땅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이다
돌 위에 핀
진보의 꽃이다
갖은 시련 다 이기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당당히 선
노랑 별꽃이여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에겐 희망이다
장하고 고맙다



이 나라 정부가 한심스럽다

해운대 파도를 헤치며
전농 깃발을 쥔 채
한중FTA 협상장으로
진격하는 사람들
한국 농수축산인들이다
얼마나 절박한
우리농업 위기이던가
들어온 중국산이
70%가 넘건만
한미FTA에 잇따라
또 다시

국내시장을 빼앗길 판
국민 먹거리가
식량주권이
위험에 빠져버렸다
더 잃을 것도
남아 있질 않건만
박근혜 중국방문에서
한중FTA 조속한 협상을
공동성명했다니
과연 뭐가 국익인가
수입산 관세장벽마저
철폐한다면
한국농업은 없다
5대작물도 한우도
우리 수산물도
지킬 길이 막막하다
살농정책의 어제 오늘이
치떨리는 분노로
활활 타오른다
농민을 거리로 내모는
이 나라가 한심하다



장마비가 그친 어느 새벽에

무화과 열매가 달렸다
장마비는 그쳤고
오래 된 동네 고양이는
새끼를 낳아 기른다

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76년 3.1구국선언도
긴급조치 9호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문익환 함석헌
작고하신 인사들
37년만에 활짝 웃다
재심은 계속되지만

올 여름이 내게는 길다
빗물 똑똑 떨어지는
시인의 거처에도
햇볕 볼 날 오려나

재판부는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과거사는 끝났는가
미완의 재심판결이다



가네 가네 한많은 세월이 가네

그 어떤 추모가도
 격려사라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네
 63년 전 민간인학살
 살아남은 유족들
 백발이 성성한
 1세대 노인네들이

흐느껴 우는
6차 창원 합동위령제에서
천주교 불교가 나서서
원혼들을 달래며
영전에 재를 올렸네
이날 이때껏
정부는 국방부는
진실화해위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특별법을 제정해
과거사 진상규명이
국가 배상이
이뤄져야 마땅하건만
빈 손으로
눈물의 추모식을 치루네
한맺힌 세월은 가도
더 늦기 전에
떨쳐 버려야 할
한국전쟁 전후의 악몽이여
무슨 노래가
무슨 말이
그들을 치유하리오
그해 학살이 남긴
핏빛 상흔은
아물지 않았네



그래 언제 한번 가 봐야지

텃밭가에 앉아 쉬며
더위를 식히다
저 풀벌레 울음소리가
옛 생각을
떠오르게 하구나
1980년 여름
꼭 이맘때
신지도 섬마을의 밤
개굴개굴 울던
그 소리가 들리네
그때 그 시절
중학생들은
못 다 가르치고
학교를 떠나야 했던
국어선생을
기억하고 있을까
핏빛 광주가 없었다면
긴급조치 9호
전과가 없었다면
평교사로서
먼 훗날 너희와

다시 만나게 됐으면만
7월 25일자로
해직된 아픔만이
내 가슴에 남았구나
해당화가 피고
파도가 밀려오던
명사십리 그 바닷가
섬마을 작은 학교
황토내음 배인
제자들 어찌 지내는지
시 한 수로
그리움을 전하마

새벽달

블로그 자신을 돌아보라 <http://blog.daum.net/youpoet>

저자 해당화

발행일 2013.07.09 22:17:30

 블로그